

2008년 6월 30일 말씀

오래된 사람들은 내가 기억합니다. 그러니 의식하지 말고 악착같이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해야 합니다.

목회하는 것은 쉽습니다. 입만 있으면 목회 할 수 있습니다. 27살에 국회의원도 되고 40대에 대통령도 되니까 젊은 나이부터 목회해도 좋습니다. 자기가 먼저 배우고 남을 가르쳐주면 됩니다. 자기 주관할 수 있으면 남도 주관 할 수 있고 자기 몸 잘 해주고 관리해야 남의 몸도 잘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. 제일 처음에는 어렵지만 모두 시작하면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에게 다 맡겨서 일을 시켰으니 열심히 해보십시오.